

“10·27법난 국가배상하라”

내년도 예산 교육·포교 집중

조계종, 2011년 예산안... 1.9% 증액

해성 스님 승소... 조계종 천태종, 명예회복 촉구

10·27 법난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도선사 회주 해성 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5부(법관 조원철 박지현 박규도)는 11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사법정 526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근배(해성 스님)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27법난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해성 스님은 법난 당시 신군부 합동수사단 군인들에게 강제로 연행돼 보안사 서빙고보실에서 구타와 욕설

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 후유증으로 스님은 탈장 증세와 언어장애를 겪었고 몇 년 뒤에는 파킨슨병을 얻는 등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스님은 2009년 5월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10·27법난에 대한 국가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확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경 스님을 비롯해 법난 피해자 8명이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김기관, 위대영)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은 3일 “이번 판결은 법난이 불교계 명예를 유린한 국가폭력 사건임을 확인해 준 역사적 판결이며 피해자 보상의 책임소재와 근거를 마련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또 천태종도 11월 14일 분당 대광사에서 ‘10·27 천태종 법난 명예회복 기원법회’를 열고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2011년도 조계종 예산이 교육·포교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 늘어난 217억4980만4000원으로, 특별회계는 105억502만2011원으로 27.3% 감액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1월 2일 정례브리핑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중앙총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관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무원은 전년 대비 3.0% 늘린 125억9258만7000원, 교육원은 3.6% 증액

한 54억7055만8000원, 포교원은 6.8% 줄어든 25억7102만1000원으로 짜여졌다. 중앙총회는 1% 감액한 7억4340만3000원, 호계원은 7.3% 증액해 1억2851만5000원, 조정기관은 12.6% 늘어난 2억4372만 원으로 편성됐다.

기획팀 이상봉 팀장은 “내년도 예산은 시설운영비 등을 10% 이상 긴축하는 대신 중단발전 4개년 계획 핵심주요 과제인 교육·포교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기고

30년 한 풀어준 판결

2010년 11월 3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구 민사법정 562호에서 법관 박지현 박규도가 배석한 가운데 조원철 판사는 “2009가합 63743” 소송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근배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라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은 아주 간단하고 짧은 선고였다.

하지만 여기엔 웅근 30년 세월이 등나무 줄기마냥 피해자의 아픔이 뒤엉켜 있었다. 이근배는 해성 스님의 속명이다. 이 선고는 해성 스님이 2009년 5월, 법무법인 덕수를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되는 자리였다.

해성 스님은 1980년 10월 27일,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5시, 도선사 경내에서 국가에 중대한 방침이 서있어 같이 가야겠다는 20여 명의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서울시청 뒤편에 있는 경찰 특수수사대(경찰청 무교동본실)에 구금돼 25일 동안 갖은 고초를 겪었다.

해성 스님은 특수수사대에 연행된 직후 승복 대신 재소자 번호가 기재된 푸른 죄수복으로 갈아입은 채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스님은 조사받는 도중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을 수시로 받았는데, 하루에 1·2차례 군복을 입은 수사보조관 4-5명이 조사실로 들어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치는 등 폭행을 했고, 각목으로 오금을 치거나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각목을 집어넣고 무릎 누르기, 새끼손가락에 불펜을 끼워 넣은 상태에서 조이기, 잠 안 재우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담당수사관들은 수사보조관들에게 고문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구경하듯이 지켜봤다고 스님은 증언했다.

이렇게 고문과 폭행으로 스님을 수행자가 아닌 피랍당한 이종인 격자로 만들었다. 시주금과 사찰공금을 유용했고 환속 후 생활대책을 위하여 개인사찰 건립, 회사설립, 부동산 매입, 요정 경영을 했으며 관청과 짜고 이권을 챙기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했고, 이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동아일보에는 계엄사의 조종을 받아 심지어 ‘낮에는 주지, 밤에는 요정경영인, 걸과 속이 달랐던 사이버 승려들의 비리’라고 보도해 스님과 한국불교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았다. 수행자로서는 사형이나 다를 바 없는 가혹한 형벌로 스님은 평생 피명울린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다. 이번 선고는 사법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스님이 갖고 있는 한의 일부나마 풀어 주는 판결이었다.

선고를 지켜보며 이 재판에 오기까지의 기나 긴 시간이 한 통의 필름을 주욱 잡아끌듯이 내 머리를 스쳐갔다. 1988년, ‘10.27법난’을 국회의 ‘5공화국 청문회’ 의제로 채택하도록 그때 평민당 중앙당사에서 농성하던 장면이나 서울 장충동 동국대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전투경찰과 최루탄, 화염병 공방을 벌이던 기억, 틈틈이 피해자의 증언을 채록하느라 만났던 분들, 문화방송(MBC)의 채환규 피디와 특집방송에 대해 논의하던 일,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염규홍, 유경상 조사관들과 함께 법난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과 마침내 그 조사결과를 ‘백서’로 내던 일, 그리고 국회가 ‘법난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법난심의위원회가 설치되던 과정 따위가 뭉뚱그려 지나갔다.

피해자조차 법난특별법에 대해 가뭇할 때 반드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여 얻은 성과물이었다. 이번 소송도 그랬다. ‘법난특별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배상’의 한계를 타지지만 말고 대안을 세워 압박해야 했었다. 그래서 또 밀어붙였다.

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잊지 말아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서동섭(前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및명예회복추진위 상임위원)

조동섭 기자

前 국방장관 고소 이어 개신교 비판

명진 스님, 좌파 시비 구설에 강경 대응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자신과 봉은사를 좌파라 발언한 이상훈 前 국방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이 前 장관과 개신교를 거세게 비판했다.

명진 스님은 11월 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상훈 前 장관이 10월 29일 애국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이상훈)의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국민대회’ 행사에서 ‘현재 81개 좌파단체가 코엑스와 인접한 봉은사에 본부를 두고 북한이랑 연계돼 있다’고 말하는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봉은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까지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스님은 “봉은사 땅밧기와 관련해 찾아 왔던 목사가 나중에 돌아가서는 ‘땅밧기 했던 학생들을 나무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표현했다”며 “개신교 단체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5일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고, 새 주지 임명을 명진 스님의 임기 만료일인 11월 13일 이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정광학원 이사장 교체 촉구

종관위, 승가대 이사 후보 등 선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과 이사장 정수 과반수 이상을 조계종 스님으로 선임할 것을 정관에 명시할 것을 촉구키로 결의했다. 정광학원은 그동안 백양사 주지가 맡아왔으나, 2009년 11월부터 범룡종 정각 스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일관)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0차 회의를 열고 정광학원 이사장을 타종단 스님이 맡아 종립학교 위상이 실추되거나 정제 손실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종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로 중앙종회의원 학담·일본·일초 스님과 불교문화사업단장 정만 스님을 추천했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된다.

종관위는 승가학원 이사 임기가 만료된 지하 스님 후임에 지하·효탄 스님(문화부장), 법산 스님 후임에 법산·정안 스님(승가학원 사무처장), 박완일 이사 후임에 박완일·법산 스님(동국대 교수)을 선출했다.

조동섭 기자

중앙총회 선거 뒷끝 짚짚

선관위에 선거소청심판청구, 당선증 교부 자제 요청



10월 28일 조계종 제15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에서 한 스님이 소성한 환포를 행사하고 있다.

수좌회는 “직능직 의원제가 계파나누먹기 등에 훼손돼 있다. 여론을 무시한 직능직선출위원회의 크게 반성하라”며 “제15대 중앙총회는 유명무실한 직능직 의원제도를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은해사교구 중앙총회 후보로 출마했다가 수계를 문제로 ‘자격없음’ 결정을 받았던 법일 스님(대전사 주지)은 11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에 앞선 10월 26일 스님은 호계원

에 행정심판도 청구한 바 있다. 법일 스님은 선거소청심판청구에서 중앙총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제233차 회의의 결정을 취소하고, 은해사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을 입후보자로서 한 중앙총회의원선거를 실시하라는 결정을 구했다.

법일 스님은 “비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림사·대전사 주지직과 제11·12·14대 중앙총회의원직을 수행해 왔다”면서 “前 총무원장 법상 스님이 비구계 수계 문제로 세속법원에서 재판 받았을 때 법원으로부터 ‘영랑사, 수덕사 주지, 중앙총회 의원직인 등을 종합하면 구족계 수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예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총회의원 후보자격박탈이 후인 10월 29일 총무부가 발급한 수계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1980년 10월 15일 비구계를 수계한 것으로 기록 돼 있다”면서 “총무부가 승적원부에 의하지 않고 수계증빙자료가 없다고 중앙선관위에 총무부장 전격로 회신한 것은 중헌중범을 위배한 중대한 행정착오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로부터 ‘자격 없음’ 결정을 받은 원경·만담 스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심판 청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원장 심경 스님은 자격판정 시비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민 기자

2011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일대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과정	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포교사회) - 불교문화재학	3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1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5명

2.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다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 원서 교부 : 2010.10. 25(월) ~ 2010. 11. 30(화) 17:00까지(대학원 교학부)
- 원서 접수 : 2010.11. 15(월) ~ 2010. 11. 30(화) 17:00까지(대학원 교학부)
- 전형일 : 2010.12. 2(목) 13 : 00(박사과정) 14 : 00(석사과정)
- 합격자 발표 : 2010.12. 6(월)
- 등록 기간 : 2010.12.20(월) ~ 2011. 1. 7(금)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장소 : 면접 교사실 - 대학본부 4층 세미나실
- 시간 : 2010. 12. 2(목) 13 : 00(박사과정) 14 : 00(석사과정)

5.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학업 및 연구계획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석사과정 :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박사과정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1부.
- 대학/대학원 전학원 성적증명서(백분율 성적 기재본) 1부.
- 승적증명서(조계종 총무원 발급, 3개월 이내) 1부.
-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 주민등록등본 1부
-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cm)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11.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원서대 : 무료
- 전형료 : 박사과정 80,000원 / 석사과정 60,000원

7. 사정원칙

-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허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사정회의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전화 : 031)980-7864 (내선 : 7864)

팩스 : 031)980-7863

특전

-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시 승가고시법시행령에 의거 3급 고시 응시 자격에 혜택이 있음.
- 조계종 승려(구족계수지자 및 익년4월 구족계수예정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 학업 우수 학인을 선발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기간 전액 장학 혜택부여.
- 각종 교내·외 장학금 지급